

강진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안전대책 병행 추진

쟁기 등 60종 572대 50% 감면
조향장치 핵심 부품 정기 점검
야간 주행 시 반사판 부착 당부
“교육 장비 지원 지속적 확대”

전라남도 강진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과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병행하며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에 나섰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기계화 영농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경제 지원과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함께 추진 중이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해 온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도 이어간다.

감면 대상은 강진군 내 경작 농업인 전원이며, 관리기, 쟁기, 굴착기 등 60종 572대의 농기계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이번 감면으로 실질적인 영농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도 강화되고 있다. 군은 계절별 주요 사고 유형에 맞춰 임대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 중이다.

봄철에는 트랙터, 경운기 등을 이용한 논밭 작업 중 전복·추락 사고가 자주 발생

한다. 여름철에는 제초기, 방제기 사용 중 절단·타박 사고가 잦으며 가을철에는 콤팩트, 탈곡기 등의 기계에서 회전 부위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 핵심 부품은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군동 본소와 칠량·도안·작천 분점을 통해 전 기종의 안전 상태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강진군은 7월 중 ‘찾아가는 농기계 안전교육 및 순회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읍면별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경운기, 예취기 등 자주 사용하는 기종의 점검과 수리를 병행하고, 사고 예방 수칙과 응급처치 방법 등을 실습 위주로 교육

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 농업인에게는 농기계 점검 체크리스트와 안전장비를 제공해 실생활에서도 자가 점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기계 기종과 임대료 정보는 강진군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영아강진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농업인의 경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도일 뿐 아니라, 영농 기계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점검, 장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진도군 ‘보배진미쌀’ 선정

전라남도 진도군 대표 고품질 브랜드 쌀인선진농협미곡종합처리장의 ‘보배진미쌀(품종:새창무·사진)’이 2025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최초 선정됐다.

3일 진도군에 따르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는 전남 쌀의 품질 향상과 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3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 전문 기관이 참여해 대상에 대한 정보 없이 심사(블라인드 심사 방식)가 진행됐다. 심사 항목은 밥맛, 품종 적합성,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 외관상 품위 평가 등 8가지 분야에 걸쳐 평가된다.

진도군에서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신규 진입을 위해 2020년 선진농협 알피씨(RPC) 시설개선 지원사업(30억원)과 ‘브랜드 쌀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2억6000만원)을 추진하고농가 교육, 계약재배, GAP 인증, 재배 포장관리 등 생산 전반 걸쳐 품질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RPC 양곡저장시설 개보수 지원사업(3억원)을 통해 품종 혼입률이 감소했고, 쌀 품위와 미질이 향상됐다.

‘보배진미 쌀’은 최첨단 설비를 통해 당일 도정 후 출고해 쌀의 신선도를 유지하며 곡은 관리, 함수율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매장에서 15일이 지난 쌀은 전량 교체하는 제도(소비자 리콜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을 계기로 진도 쌀의 고급화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농기계임대사업소 농번기 대비 무안군, 6월 토요일 확대 운영

전라남도 무안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업인의 이용 편의 증진과 영농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6월 한 달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토요일에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6월까지 평일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른 아침 농기계 수령에 불편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사전 출고제’를 함께 운영해 임대 전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농기계를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농기계를 직접 운반하기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운반 서비스’와 ‘영농 현장 긴급출동 서비스’도 연중 운영해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김향금 농촌지원과장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탄력적인 임대사업소 운영을 통해 농기계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연 기자

소방시설 차단·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전라남도 영암소방서는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사항을 발견한 시민이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화재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암소방서는 그동안 의용소방대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이어왔으며 공공청사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제도 안내와 신고 방법을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김재승 서장은 “비상구는 재난 시 생명을 지키는 통로로, 이를 막는 행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지난달 23일 무안군 해제면 복지기동대 직원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세대를 찾아 미용 봉사를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해제면 복지기동대 ‘찾아가는 미용 봉사’ 활동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복지기동대가 지난달 23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희망 살롱’을 운영했다.

3일 무안군 해제면 복지기동대에 따르면 이번 특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 방문이 힘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전문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전문 이미용 자격을 보유한 복지기동대원은 정성 어린 손질과 함께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졌다.

황인섭 복지기동대장은 “단순한 미용

서비스가 아니라, 어르신의 자존감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기동대의 역할을 고민하며 지역민을 위해 애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서 해제면장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세심한 배려의 활동을 이어준 기동대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면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맞춤형 돌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진도군, 공공학습 플랫폼 ‘일취월장’ 디지털공부방 운영

중·고교생 830명에
1:1 화상 수업 방식

전라남도 진도군은 교육혁신을 통한 양질의 ‘인공지능(AI) 스마트 학습’ 서비스 제공과 자기 주도형 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일취월장’ 디지털공부방의 시스템 최종 점검을 완료하고 이달 중순부터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진도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 중이며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형 교육복지의 한 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일취월장’은 학생 개개인의 AI 학습 진단을 통해 맞춤형 문제를 제공하는 ‘AI 에듀케어’와 대학생을 관내 중·고등학생과 연결하는 1:1 화상수업 지도(멘토링)로 진행된다.

‘AI 에듀케어’는 관내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약 830명에게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총 5 과목에 대한 학습 서비스와 함께 실시간으로 문제 풀이와 해설을 제공한다.

1:1 화상수업 지도(멘토링)는 ‘고2 집중케어’를 포함해 80명을 학교 추천으로 선발하고 진로 상담과 자기주도학습 공부법 등을 알려주며 취약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교육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교육의 혁신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아 이닝고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진도의 밝은 미래를 함께할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어반스케치 드로잉 교실 수강생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모집

전라남도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이 다음달 2일부터 10월1일까지 운영하는 성인 미술교육 프로그램 ‘어반스케치’ 수강생을 모집한다.

3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영암군민이 문화예술을 누리고 예술이 함께 하는 일상을 살아가도록 마련됐다.

어반스케치는 노예운 서양화가의 강의로 펜드로잉과 수채화 표현 기법을 배워 영암의 풍경 등을 표현하는 과정이다.

노 작가는 도형·점물 스케치를 시작으로 투시 원리를 응용한 풍경 드로잉에서 영암의 풍경을 채색해보는 과정까지 수강생 맞춤형 콘텐츠로 실기 위주로 수업한다.

교육 참여 희망자는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에 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영암=한교진 기자